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소설의 서술자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묻는 문제와, 서술자의 관점에 따른 시점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단다. 특히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거나, 서술자를 바꾸었을 때 작품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다.



‘동백꽃’의 서술자인 ‘나’가 정말 순진하고 웃긴 것 같아요.

맞아, 이번 단원에서는 서술자 ‘나’가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눈치가 없고 순박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 특히 독자는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나’만 모르는 상황이 작품의 해학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묻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된단다.



‘동백꽃’의 시점과 그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 소설이 이야기 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단다. 특히 주인공인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를 직접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에 의존해 서술함으로써 얻는 효과, 즉 독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게 만드는 재미를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다.



‘감자’, ‘닭싸움’, ‘동백꽃’ 같은 주요 소재의 의미도 궁금해요!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_____가 누구이며 어떤 _____을 지니는 지 묻는 문제와, 서술자의 관점에 따른 시점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단다. 특히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의 _____나 _____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거나, 서술자를 바꾸었을 때 작품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다.



‘동백꽃’의 서술자인 ‘나’가 정말 순진하고 웃긴 것 같아요.

맞아, 이번 단원에서는 _____가 _____의 말과 행동에 담긴 _____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_____가 없고 _____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 특히 독자는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나’만 모르는 상황이 작품의 _____을 어떻게 높이는지 묻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된단다.



‘동백꽃’의 시점과 그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 소설이 이야기 안의 주인공인 ‘_____’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_____’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단다. 특히 주인공인 서술자가 _____의 심리를 직접 알지 못하고 자신의 _____에 의존해 서술함으로써 얻는 효과, 즉 독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읽게 만드는 재미를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다.



‘감자’, ‘닭싸움’, ‘동백꽃’ 같은 주요 소재의 의미도 궁금해요!

좋아, ‘_____’는 점순이의 첫 _____이자 _____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_____’은 갈등을 _____시키는 동시에 _____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을, ‘_____’은 갈등의 _____와 _____분위기를 상징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



만약 서술자를 ‘나’에서 ‘점순이’나 ‘작품 밖 서술자’로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발단) **오늘도**(닭싸움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서술자. '작품 안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뽀하게 생긴 놈**(점순네 수탉의 외양 묘사))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우리 수탉과 대조적인 모습)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나’의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남.)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나’가 점순네 수탉을 후려치면 안 되는 처지이며, 마음이 약함을 짐작하게 함.)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음. →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의 심리는 전달할 수 없음. '점순이가 행동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달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점순이가 오늘도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나’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부분 → 역순행적 구성.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옆는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귀찮아하고 있음.)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점순이를 향한 ‘나’의 무뚝뚝한 말투)

내가 이렇게 내뽐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나’를 향한 점순이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소재. ‘감자는 ‘나’를 향한 점순이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나’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함. ‘나가 감자를 거절할 이유에 해당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마음이 상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자를 거절함. →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됨.)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함.) 이걸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해 민망한 점순이의 모습.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하자 민망해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더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 점순이가 당돌하며 활달하고 씩씩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나가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음을 알 수 있음.)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나의 집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기 때문에 마름인 점순네 집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음.)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나가 ‘발단’ 부분에서 점순네 수탉을 후려치지 못하고 헛매질만 한 까닭이 두 집안의 관계 때문임을 알 수 있음. ‘점순이에게 내가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나흘 전,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함.

(전개2)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감자 사건이 있었던 날이 나흘 전이므로, 이 부분은 사흘 전의 일임을 알 수 있음.)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즈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분풀이)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계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대개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뺧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나'가 소리를 질러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순이가 일 부러 '나'가 볼 수 있도록 씨암탉을 때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점순이의 행동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복수이 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점순이는 '나'를 향한 애정과 미움의 이중적인 감정을 보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 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점순이의 괴롭힘에 소극적 으로 대응하는 '나')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쇠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 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꺾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 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훑하 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기에다 물찌똥을 짖 깔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원망.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애!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핵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옥 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옥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 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 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툼툼이 즈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즈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싸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툼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 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 고 와서 꼬여 내다가 싸움을 붙인다.**(영악하고 집요한 점순이의 행동)

▶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옥을 하지만 '나'는 대거리를 못 함.

(위기)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점순네 수탉을 이길 방법을 찾기 시작한 '나')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나’의 순진함이 드러나는 부분 ① -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점순네 수탉을 이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해 해학성을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장독에 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 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발에 두엄을 두어 짐 져 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즈 울 안에서 헨 옷을 뜯는지 혹은 숨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발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나’가 점순네 닭과 자신의 닭을 싸움 붙이려고 함.) 두 닭은 여전히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오늘도**(닭싸움이 ___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___, '작품 안 서술자가 자신 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점순네 수탉의 ___ 묘사))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우리 수탉과 ___적인 모습)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 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 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나의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___가 남.)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내가 점순네 수탉을 후려치면 안 되는 ___이며, 마음이 ___을 짐작하게 함.)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랫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___ 있음 → 서술자인 ‘나’는 ___의 심리는 전달할 수 없음. ‘점순이가 행동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달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없습니다.)

▶ 점순이가 오늘도 ___을 붙여 ‘나’를 괴롭힘.

() **1)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내가 과거를 ___하기 시작하는 부분 → ___구성.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없습니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옆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머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___하고 있음.)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짐잡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점순이를 향한 ‘나’의 ___ 말투)

내가 이렇게 내뻘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감자**(‘나’를 향한 점순이의 ___을 엿볼 수 있는 소재. ‘감자는 ‘나’를 향한 점순이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나’는 이 말에 ___이 상함. ‘내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에 해당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마음이 상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____를 ____함. → 둘 사이에 ____이 ____됨.)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나’에게 호의를 ____당해 ____이 상함.) 이걸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해 ____한 점순이의 모습.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하자 민망해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더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점순이가 ____하며 활달하고 ____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나’가 점순이의 말에 ____이 상했음을 알 수 있음.)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나와 집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____이기 때문에 ____인 점순네 집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음.)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나’가 ‘발단’ 부분에서 점순네 ____을 후려치지 못하고 ____만 한 까닭이 두 ____의 관계 때문임을 알 수 있음. ‘점순이에게 내가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나흘 전, ‘나’는 점순이가 주는 ____를 거절함.

(____2)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달 날 저녁나절이었다.**(감자 사건이 있었던 날이 ____ 전이므로, 이 부분은 ____ 전의 일임을 알 수 있음.)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아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즈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탸를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____)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짜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뺨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나’가 소리를 질러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순이가 ____

_____ '나'가 볼 수 있도록 씨암탉을 때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점순이의 행동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_____ 하면서 '나'의 _____ 을 끌기 위한 것. **'점순이는 '나'를 향한 애정과 미움의 _____ 인 감정을 보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점순이의 괴롭힘에 _____ 으로 대응하는 '나')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섧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꺾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 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훑하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기에다 물찌똥을 짖 깔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자신의 마음을 _____ '나'에 대한 점순이의 _____,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애!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얼빙거지가 나서 고개를 핵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옥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옥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 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즈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즈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 하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갈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앉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여 내다가 쌈을 붙인다.**(_____ 하고 _____ 한 점순이의 행동)

▶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옥을 하지만 '나'는 _____ 를 못 함.

(위기)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점순네 수탉을 이길 _____ 을 찾기 시작한 '나')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넉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나’의 _____ 이 드러나는 부분 ① - 수탉에게 _____ 을 먹이면 점순네 수탉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해 _____ 을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화 속에서다 가두어 두었다.

발에 두엄을 두어 짐 져 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즈 울 안에서 헨 옷을 뜯는지 혹은 숨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발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나’가 점순네 닭과 자신의 닭을 _____ 붙이려고 함.)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 쪼아 보도 못한다.

그러나 한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동백꽃」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배경	시간적 배경: 1930년대 봄 공간적 배경: 강원도 동촌 마을
제재	동백꽃
주제	동갑내기 동촌 남녀의 사랑
특징	① 어수룩하고 순백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임. ②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2. 「동백꽃」 소설 전개 순서와 주요 사건

발단	점순이가 오늘도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하지만 '나'는 대거리를 못 함.
위기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 '나'의 닭이 패함.
절정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환김에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임.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용서받고, 점순이와 함께 동백꽃 속에 파묻힘.

3.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애정 표현 '나'가 감자를 거절하여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됨.
닭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함.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미움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냄.
동백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냄.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TEST 1단계

1. 「동백꽃」 작품 개관

갈래	<input type="checkbox"/> 대 소설
배경	<input type="checkbox"/> 간적 배경: 1930년대 <input type="checkbox"/> 공간적 배경: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촌 마을
제재	<input type="checkbox"/> 백꽃
주제	동갑내기 <input type="checkbox"/> 촌 남녀의 <input type="checkbox"/> 랑
특징	① <input type="checkbox"/> 수룩하고 <input type="checkbox"/> 박한 인물을 <input type="checkbox"/> 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input type="checkbox"/> 학성을 높임. ② <input type="checkbox"/> 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input type="checkbox"/> 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 <input type="checkbox"/> 거-현재'의 <input type="checkbox"/> 순행적 구성을 취함.

2. 「동백꽃」 소설 전개 순서와 주요 사건

발단	점순이가 오늘도 <input type="checkbox"/> 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주는 <input type="checkbox"/> 자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input type="checkbox"/> 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input type="checkbox"/> 을 하지만 '나'는 <input type="checkbox"/> 거리를 못 함.
<input type="checkbox"/> 기	'나'는 수탉에게 <input type="checkbox"/> 추장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 '나'의 닭이 <input type="checkbox"/> 함.
절정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input type="checkbox"/> 김에 점순네 수탉을 <input type="checkbox"/> 려죽임.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input type="checkbox"/> 서받고, 점순이와 함께 <input type="checkbox"/> 백꽃 속에 파묻힘.

3.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input type="checkbox"/>정 표현 • '나'가 감자를 <input type="checkbox"/>절하여 '나'와 점순이의 <input type="checkbox"/>등이 시작됨.
닭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input type="checkbox"/>소의 <input type="checkbox"/>마리를 제공함. • '나'에 대한 점순이의 <input type="checkbox"/>정과 <input type="checkbox"/>움의 <input type="checkbox"/>중적 감정을 드러냄.
<input type="checkbox"/> 백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input type="checkbox"/>소되었음을 드러냄. • <input type="checkbox"/>만적 분위기를 <input type="checkbox"/>성함.

TEST 2단계

1. 「동백꽃」 작품 개관

갈래	흥 <input type="checkbox"/> 소설
배경	시 <input type="checkbox"/> 적 배경: 1930년대 <input type="checkbox"/> 공간적 배경: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을
제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제	동갑내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남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징	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인물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설정하여 작품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높임. 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 어휘를 사용하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재'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구성을 취함.

3.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표현 • '나'가 감자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여 '나'와 점순이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시작됨.
닭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제공함. • '나'에 대한 점순이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을 드러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되었음을 드러냄.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위기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2. 「동백꽃」 소설 전개 순서와 주요 사건

발단	점순이가 오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주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때 리고, '나'에게 <input type="checkbox"/> 을 하지만 '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못 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는 수탉에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 '나'의 닭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절정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순네 수탉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받고, 점순이와 함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속에 파묻힘.

TEST 3단계

1. 「동백꽃」 작품 개관

갈래	□□ 소설
배경	□□적 배경: 1930년대 □ 공간적 배경: 강원도 □□ 마을
제재	□□□
주제	동갑내기 □□ 남녀의 □□
특징	① □□□하고 □□한 인물을 □□□로 설정하여 작품의 □□□을 높임. ② □□□인 어휘를 사용하여 □□□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현재’의 □□□적 구성을 취함.

2. 「동백꽃」 소설 전개 순서와 주요 사건

발단	점순이가 오늘도 □□□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주는 □□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을 때리고, ‘나’에게 □을 하지만 ‘나’는 □□□를 못 함.
□□	‘나’는 수탉에게 □□□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 ‘나’의 닭이 □□.
절정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 점순네 수탉을 □□□□.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받고, 점순이와 함께 □□□ 속에 파묻힘.

3.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 표현 • ‘나’가 감자를 □□하여 ‘나’와 점순이의 □□이 시작됨.
닭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의 □□□를 제공함. • ‘나’에 대한 점순이의 □□과 □□의 □□□ 감정을 드러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되었음을 드러냄. • □□□ 분위기를 □□함.

TEST 4단계

1. 「동백꽃」 작품 개관

갈래	___ 소설
배경	___적 배경: 1930년대 ___ 공간적 배경: 강원도 ___ 마을
제재	_____
주제	동갑내기 ___ 남녀의 ___
특징	① ___하고 ___한 인물을 ___로 설정하여 작품의 ___을 높임. ② ___인 어휘를 사용하여 ___인 분위기를 자아냄. ③ ‘현재-___-현재’의 ___적 구성을 취함.

3.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___ 표현 • ‘나’가 감자를 ___하여 ‘나’와 점순이의 ___이 시작됨.
닭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___의 ___를 제공함. • ‘나’에 대한 점순이의 ___과 ___의 ___ 감정을 드러냄.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___되었음을 드러냄. • ___ 분위기를 ___함.

2. 「동백꽃」 소설 전개 순서와 주요 사건

발단	점순이가 오늘도 ___을 붙여 ‘나’를 괴롭힘.
전개1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주는 ___를 거절함.
전개2	점순이는 ‘나’의 집 ___을 때리고, ‘나’에게 ___을 하지만 ‘나’는 ___를 못 함.
_____	‘나’는 수탉에게 ___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또 ‘나’의 닭이 ___.
절정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___ 점순네 수탉을 ___.
결말	‘나’가 닭을 죽인 것을 ___받고, 점순이와 함께 ___ 속에 파묻힘.

O / X 문제

【1~5】 「동백꽃」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서술자는 소설에서 독자에게 사건, 인물의 행동과 심리 등을 전달하는 이를 말한다. (O / X)

2. 「동백꽃」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밖에 위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O / X)

3. 「동백꽃」은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O / X)

4.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주는 행동에 담긴 호의와 애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O / X)

5. 이 소설에서 ‘감자’는 점순이가 ‘나’에게 보내는 첫 애정 표현이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소재다. (O / X)

1. O 2. X 3. O 4. X 5. O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어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쌍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던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 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썩어빠져서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었더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황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 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즈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짱계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뺨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섧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꺾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계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 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계를

횡하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기에도 물찌뚱을 짝 깔렸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뭐? 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옥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옥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 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뿜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즈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즈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여 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언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해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발에 두엄을 두어 짐 저 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즈 울 안에서 헨 옷을 뜯는지 혹은 숨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열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 쪼아 보도 못한다.

그러나 한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췄다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